

# 수출중기 10곳 중 8곳 '코로나19로 수출 악화될 것'

코로나19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수출이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10곳 중 7곳은 1/4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27%는 인력 감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 지원,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인의 수출국 입국허용대응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이후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수출이 악화될 것(78.7%)이라고 전망했다.

악화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출국의 수요감소로 신규 주문감소와

수출국 수요 감소로 신규 주문감소가 69.5%

중기 68.0% "1분기 자금 사정 악화"

교역조건 악화 따른 대응책 '대체 시장 발굴'로 꼽아

기존 수출물량 납품연기(69.5%), '수출국의 입국금지조치로 해당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50.0%)', '해외전시회 취소로 수주기회 축소(2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0%이상 감소가 47.4%(30~50% 18.7%, 50%이상 28.7%)로 지난 3월

조사된 25.0%(30~50% 15.7%, 50% 이상 9.3%)보다 22.4% 증가했다. 이는 4월 들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상황악화가 지속될 경우 감내 기간으로 '3~6개월(30.0%)', '1~3개월(26.0%)', '6개월~1년(22.3%)', '1년 이상(16.3%)', '1개월 이내(5.3%)'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68.0%)은 1/4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외부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22.7%로 나타났다.

필요자금 대비 외부자금 확보 정도로는 '30%이내(44.1%)', '30~50%(33.8%)', '50~70%(11.8%)', '70~90%(2.9%)', 90% 이상(7.4%) 순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7.9%)은 필요자금의 50% 이하만 확보, 필요 자

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73.0%가 현재수준을 유지한다고 응답했으며, 27.0%는 인력 감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감축 시 '10% 이내(37.0%)'가 가장 많았으며, '20~30%(23.5%)', '10~20%(18.5%)', '40%이상(12.3%)', '30~40%(8.6%)' 순으로 응답했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대체 시장 발굴'(32.7%)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기준거래처 관리강화(31.3%)', '일금삭감, 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29.3%)', '온라인 등 비대면마케팅 강화(29.0%)', '별도 대응방안 없음(13.0%)', '폐업 및 구조조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부 중점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55.3%)', '선적지원, 결제지원 등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38.0%)', '기업인의 수출국 입국허용 대응 강화(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해외 바이어의 주문 후 물량 취소, 결제 지연, 재고 증가에 따른 납품가격 인하요구 등의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이끄는 수출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한 만큼 운영자금 지원, 주요 교역국 전세기 투입 등 이미 마련된 수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 '총력'

### 경진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업무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2020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사업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 협약식이 28일 전주 신시가지 체합점포 '꿈이룸'에서 진행됐다.

경진원은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별로 1회씩 창업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운영은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이론교육을 약 150시간 진행되며, 이론교육이 완료된 시점부터 체합점포 꿈이룸에 입주한다. 약 16주간 점포체험과 멘토링 운영을 통해 교육생들이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한껏 끌어낼 예정이다.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들은 수료생으로 전환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 수료 후 4개월 이내에 창업이 완료된 교육생은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자금 적격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윤상 기자



## 농진청, 김제 감자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내 감자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삼남 원장과 직원 14명은 28일, 김제시 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감자 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왔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외부를 정리하는 등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김제시 광활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일손을 보냈다.

과학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5월부터는 다른 작물의 재배농가도 찾아 농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김삼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영농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순정축협 축산환경개선 벽화그리기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은 28일 순창군 팔덕면에 소재한 주영농장(강창희 농가)에서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축사 탈바꿈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행사'를 병행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축산농가 외부 경관 및 이미지 개선(보이는 냄새저감)으로 축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행복을 나누는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농가의 환경개선 의지를 고취하고자 전북농협·순정축협 직원과 축산환경개선 컨설턴트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가축질병 예방관련 소독제 살포, 약취저감 및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혼신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축사소독을 하는 '일제소독의 날'과 해충 및 쥐를 구제하기 위한 '구서·구충의 날', 축사 내·외부 청소를 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통합·확대 운영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힘내라 전북'...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특별 판매

### 도-생진원,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추진... 10~30% 할인판매 지원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식품기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특별 판매전(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개화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야외 행사 취소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전북 소재 식품기업의 온라인 소비촉진 활성화를 일환으로 기획됐다.

온라인 특별판매전은 2016~2019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여한 전라북도 우수 중소 식품기업 60개

사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엄선한 전통식품 대표업체 21개사 대상으로 우체국쇼핑몰(mall.post.go.kr)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기획전(가칭 '힘내라 전북도')을 구성해 추진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배너광고·애플 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전북 식품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할인 쿠폰(10~30%, 소진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미인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지원하고, 추가입점을 통해 프로모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이 전라북도의 전통식품과 우수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도 식품기업을 위해 저희 진흥원은 전라북도와 협력해 우수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020년 JB카드 가정의달 이벤트'를 시행한다.

## JB카드 가정의달 이벤트

### 전북은행, 언택트 소비 트렌드 반영 온라인쇼핑 건별 이용금액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쿠폰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020년 JB카드 가정의달 이벤트'를 시행한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총 5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홈)쇼핑 업종에서 건별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페이코에 JB카드를 등록 후 이용한다면 이용실적 2배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고자 최대 10개월까지(부분)무이자할부

도 제공한다.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2~5개월까지 전액 무이자할부가 제공되며, 장기 부분 무이자할부도 제공되는데 1회차 할부수수료만 부담하면 6~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가정의달을 맞아 ▲쿠팡 ▲위메프 ▲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제휴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본 행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업체별 웹사이트 및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벤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사회초년생도 최대 2000만원까지 간편 대출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썬파일러 대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NH스마트뱅킹에서 금융거래 이력이 짧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최대 2,000만원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NH썬파일러 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썬파일러(Thin Filer)는 '서류가 얇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NH썬파일러 대출'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법인기업체 근로자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은행 방문이나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NH스마트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 한도 및 금리조회와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어 여윌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는 급여이체 실적(0.3%), NH채움신용카드 보유(0.2%), 통신우량등급 우대(0.5%) 등 최대 1.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최저 연 3.4%(지난 24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상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3월 전북 수출, 5억4099만 달러

### 전년대비 4.8% ↓... 코로나19 수출 피해는 4월부터 본격화 전망

2020년 3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5억 4,099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3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북 수출은 조업업 수 증가(2일)와 건설광산기계, 동제품, 농약/의약품, 농기계 등 일부 업종의 호실적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도 감소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월간 수출 1위 품목이 정밀화학원료에서 건설광산기계로 바뀌었다. 건설광산기계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진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해 전년보다 12.9% 증가한 4,924만 달러를 기록했다. 폴리실리콘(\$434만, -87.9%)의 생산이 2월부터 중단되어 수출도 급감한 영향으로 정밀화학원료(\$4,273만, -37.2%)는 2위로 내려왔다. 금액 기준 10대 수출품목 중 증가한 품목은 동제품(\$3,533만, 28.2%), 농약/의약품(\$3,133만, 10.7%), 종이제품(\$2,464만, 7.6%), 농기계(\$2,325만, 43.7%), 인조섬유(\$2,153만, 14.9%)였고, 합성수지(\$3,997만, -8.2%), 자동차(\$2,819만, -44.6%), 자동차부품(\$2,132만, -50.0%) 등은 감소했다.

## 전북도-전북농협 '코로나19 극복 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 내달 2일 도청서 최대 62% 특별 할인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도청 의회쪽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북 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최대 62%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3차에 걸쳐 매주 토요일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4차 행사에는 그동안 구성에 없었던 축산물위주로 한우불고기세트, 삼겹살한삼세트, 임실치즈유가공품세트, 햄·소세지세트 2종, 수제떡갈비 등 총 6개 품목으로 최대 62% 할인해 선착순 판매한다.

특히 한우불고기와 삼겹살한삼세트는 4인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도록 고기 1kg을 기준으로 구성, 각각

불고기 양념, 산추, 깻잎, 고추, 마늘을 같이 구성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구워먹는 치즈 치즈핫도그 등 유가공품세트와 햄, 소세지, 수제떡갈비 등 유가공품세트를 구성해 도민을 맞을 예정이다.

본 행사를 전북도와 협업하고 있는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전북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도내 축산물의 소비 불이 일어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장내 부스는 충분한 길이와 공간으로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했으며, 결재와 상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장 방문 및 구입절차는, 도청 북 1문으로 진입해서 현장 운영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 순 소속 이후 주문서와 필기구를 받아 차량안에서 주문서를 작성한 뒤 판매소에서 상품 수령과 결제(카드 및 현금)가 완료 후 출구(도청 남문)를 통해 이동하면 된다.

최재용 농축수산물품장은 "도민들께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까지 다양한 판매상품으로 드라이브 스루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 할 수 있어 기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축산물 생산자·소비자간 상생의 기회로 삼아 축산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